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Krumboltz's Task Approach Skills on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Kyoung-Mi Kim(owl7499@hanmail.net)*, Young-Kwang Bae(17glory@hanmail.net)*,
Yi-Seul Min(alsdlmfl@naver.com)*, Sung-Hwa Jang(911149@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 중 낙관성, 위험감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상관분석 결과 진로정체감은 진로성숙 진로포부와 정적상관을,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낙관성은 진로장벽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는 진로성숙과는 정적상관을,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진로성숙에는 진로정체감, 낙관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에는 진로정체감, 낙관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포부에는 낙관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에서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에 대한 태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내담자들이 낙관성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진로정체감 | 과제접근기술 | 진로성숙도 | 진로장벽 | 진로포부 |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ask-approach skills of optimism, bearabil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career identity,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two-hundred sixty nine college students who matriculated in college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in Korea.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carried ou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ident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maturity, aspiration and negatively with career barrier. optimis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barrier. in addi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maturity. and negatively with career barriers. Seco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vealed that career identity, optimism and lack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maturity, career identity, optimism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barriers. In addition, only optimism influenced career aspiration. These findings implied that career counselors need to assist clients developing optimism, flexibility, bearability and counselors should be aware of the effect of task-approach skills on career, barriers, and aspiration. Further discussions regarding results are included.

■ keyword : | Career Identity | Task-approach Skills | Career Maturity | Career Barriers | Career Aspiration |

I. 서론

현대사회의 고도로 발전된 산업화와 정보화로 직업의 세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볼 때 가장 중요한 과업중 하나이며, 개인의 진로 선택이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56].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직업을 통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로상담에서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연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오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5]. 예를 들어, 기존의 전통진로선택이론은 진로 선택 시 만나게 되는 진로장벽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33]. 그러나 사회변화의 폭이 크고 급진적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지식, 능력보다는 개인이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미치는 개인·심리적 변인과 맥락적·환경적 변인의 역할을 탐색하려는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10]. 이처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제한된 속성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폭넓은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20],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학습이론이다.

Krumboltz(1998)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환경조건과 사건이 종종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 기술발달, 활동, 진로선호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진로는 생애 전반에 걸쳐 겪은 특정사건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선택 또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rumboltz(1998)는 진로 선택 시점에서는 계획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하며[47], 진로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25], 진로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우연적 사건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제접근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9]. 과제접근기술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술로[30], 타고난 능력, 환경적 조건, 학습경험의 상호작용 결과로 습득된다[31]. 특히 Krumboltz는 호기심, 인내,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행동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호기심(curiosity)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 인내(persistence)는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고, 셋째, 유연성(flexibility)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넷째, 낙관성(optimism)은 새로운 기회들을 가능성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험감수(risk taking)는 불명확한 기회에 맞서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28].

과제접근기술이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다소 이루어져왔다. 낙관성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밝혀졌다[1][50][55]. 유연성 역시 진로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한 호기심은 학습수행이나 자발적 직업 선택과 같은 행동적 변인보다도 정적인 상관을 보일 뿐만 아니라[58]. 독립성, 자존감, 주관적 안녕감,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변인보다도 정적 상관을 보여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들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59].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 및 위험감수와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Krumboltz는 학습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일반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일반화는 자신의 태도, 업무습관, 가치관, 흥미, 능력 수준에 대한 일반화를 의미하며, 세상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에서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고 하였다[30]. 세상에

대한 신념은 직업세계나 구직과정에 대해 갖게 되는 일정한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46]. Krumboltz(1999)는 이러한 진로장벽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있어서 과제접근기술인 호기심, 인내,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대한 기술을 키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38].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34].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외부 환경적 요건보다 그것을 다루는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의해 더 좌우된다[20]. 인지적 평가과정을 중요시한 Lent, Brown와 Hackett(1994)는 사회인지이론에서 진로선택의 형성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의 일부로 지각된 진로장벽을 포함하였다[41].

지금까지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김나래와 이기학(2012)의 연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견디기 어려워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고 밝혔으며[50], 정나미, 엄정혜, 성버리와 양은주(2011)의 연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청소년의 진로장벽 지각에 중요한 개인차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52].

또한 사회인지이론은 개인변인과 사회맥락변인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진로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41]. 진로포부란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 가를 의미한다[27]. 진로포부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직업 포부(occupational aspiration)로 이는 임의의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희망 직업을 의미한다[42]. 직업 포부는 주로 서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주로 진학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위의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학력 경쟁 및 취업 경쟁을 고려하여 개념화 한, 직업적 포부와 교육적 포부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진로포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19]. 개인의 진로포부는 진로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일치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14]. 이처럼 진로포부는 진로대안을 선택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즉 가능성과 개인과 환경의 일치를 뜻하는 적합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18]. 또한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와 이상민(2012)은 과제접근기술은 진로포부수준이 구체적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5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환경적 변인인 과제접근기술과 함께 최근까지 진로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던 발달적 관점의 안정적 예측 변인인 진로정체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진로발달에 있어 개인·심리적 변인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45]. 진로 정체감은 Erikson의 자아 정체감 이론을 직업(occupation)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35], 자아정체감은 진로 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6]. Holland와 Holland(1977)은 진로정체감 검사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4][44]. 높은 수준의 진로 미결정은 낮은 수준의 정체감,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능력, 높은 수준의 혼돈감, 낮은 수준의 직업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Harren(1979)은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이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자의 자아정체감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변인으로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3]. Graef, Wells, Hyland와 Muchinsky(1985)은 진로 미결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꼽았다[36][39][40]. 즉,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이 있으며, 이들이 각각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봉환(199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입증하였다. 그밖에도 진로정체감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다[60][61].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고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명확

한 진로정체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진로성숙의 발달과 동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32].

기존의 진로연구는 특성이론, 발달이론과 같이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과 관련된 이론들은 검증이 되어왔으나, Krumboltz(1998)의 사회학습이론이나 사회인지이론과 같은 비교적 최근 이론들과 관련해서는 양적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47], 손은령(2009)은 문헌고찰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9].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진로 상담 이론 및 진로 상담 현장에서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 받았던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 기술이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은 다섯 가지 기술 중 낙관성, 위험감수,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낙관성은 다섯 가지 과제접근기술 중 진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와 위험감수 행동은 최근 다양한 이론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대학 4년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7	47.2%
	여자	142	52.8%
학년	1학년	28	10.4%
	2학년	97	36.1%
	3학년	88	32.7%
	4학년	56	20.8%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14세로 범위는 19세에서 58세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둘째 주 부터 셋째 주 까지 설문지가 400부 배부되어 34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한 269명을 최종 자료 분석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진로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 및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했다[3][45]. 이 척도는 총 18개 문항으로 5점 Likert를 사용했다. 측정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본 연구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2 낙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eier, Carver & Bridges(1994)가 개발한 생활지향검사 질문지(LOT-R)를 김민정(2006)이 번안 및 수정한 검사지를 이용했다[2][15].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를 사용했다. 측정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도 .74로 나타났다.

2.3 위험감수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nowles 등(1973)이 개발한 위험감수 척도(RTQ: Risk-Taking Questionnaire)를 이흥표(2003)가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했다[54].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5점 Likert를 사용했다. 측정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전환이나 직업의 대안 등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도 .76로 나타났다.

2.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프랑스의 Freeston(1994)가 개발하였고 Buhr과 Dugas(2002)가 영문판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설승원(2006)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했다[8][29][37].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4점 Likert를 사용했다. 측정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도 .66로 나타났다.

2.5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봉환(1997)이 수정 및 번안한 것을 이용했다[3][23]. 이 척도는 태도척도(Attitude Scale)와 능력척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태도척도(Attitude Scale)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전체 47문항으로 4점 Likert를 사용했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α) .85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도 .89로 나타났다.

2.6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과

이기학(2003)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를 사용했다[26].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5점 Likert를 사용했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파일러팅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도 .91로 나타났다.

2.7 진로포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O'Brein의 The Career Aspiration Scale을 최수욱(2002)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했다[24]. 이 척도는 전체 10문항으로 5점 Likert를 사용했다. 측정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α) .78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의 신뢰도는(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자료를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실시한 통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낙관성, 위험감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낙관, 위험감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간의 상관분석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간의 상관관계수(Pearson)를 살펴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 간의 상관계수

구분	1	2	3	4	5	6	7
1	-						
2	.38***	-					
3	-.004	.09	-				
4	-.36***	-.32***	-.20***	-			
5	.57***	.47***	.06	-.39***	-		
6	-.64***	-.50***	-.06	.38***	-.72***	-	
7	.21***	.38***	-.03	-.08	.33***	-.37***	-

*p<.05, **p<.01, ***p<.001

1. 진로정체감 2. 낙관 3. 위험감수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5. 진로성숙 6. 진로장벽 7. 진로포부

[표 2]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와 진로포부, 위험감수와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r=.57$), 인내성과 진로장벽($r=.38$),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r=-.72$), 낙관성과 진로장벽($r=-.50$), 진로장벽과 진로포부($r=-.37$), 위험감수와 인내성($r=-.20$)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1 진로성숙도의 중다회귀분석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성숙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2	F
진로성숙도	1모형	진로정체감	.917	.571	11.351***	.323	128.841***
		진로정체감	.661	.411	7.768***		
	2모형	낙관성	1.107	.263	5.067***	.414	48.410***
		위험감수	.018	.005	.102		
		인내부족	-.437	-.161	-3.064**		

*p<.05, **p<.01, ***p<.0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회귀 모형에서 첫 번째 진로정체감의 설명력은 32.3%, F값이 128.841($p<.001$)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의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부족을 함께 모형으로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41.4%로 증가하였고, 추가모형에 의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F 변화량 14.895, $p<.001$) 추가모형의 F값은 48.410이며 유의확률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진로정체감은 1모형과 2모형 모두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정적관계(1모형 $\beta=.571$, 2모형 $\beta=.411$)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면 진로성숙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된 과제접근기술 낙관성($\beta=.263$), 인내부족($\beta=-.161$)이 진로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부족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정체감이 발달하고 낙관성이 높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잘 견딜수록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진로장벽의 중다회귀분석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진로장벽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2	F
진로장벽	1모형	진로정체감	-.916	-.641	-13.641***	.411	186.087***
		진로정체감	-.707	-.495	-10.029***		
	2모형	낙관성	-1.018	-.272	-5.623***	.499	65.653***
		위험감수	-.054	-.016	-.363		
		인내부족	.277	.115	2.345*		

*p<.05, **p<.01, ***p<.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장벽에 대하여 진로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진로정체감이 진로장벽을 41.1% 설명하며 유의미한 회귀모형임

을 보였으며($F=186.087, p<.001$), 진로정체감이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41, p<.001$). 추가된 과제접근기술(낙관성, 위험감수, 인내부족)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도 유의미한 추가 변화를 보이며(F 변화량 15.442, $p<.001$) 비교적 높은 설명력인 49.9%, F 값 65.653($p<.001$)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보였다. 추가모형에서 진로정체감($\beta=-.495, p<.001$), 낙관성($\beta=-.272, p<.001$)이 부적인, 인내부족($\beta=.115, p<.05$)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체감과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부족할수록 진로장벽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진로포부의 중다회귀분석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포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2	F
진로포부	1모형	진로정체감	.120	.218	3.645***	.160	13.287***
		낙관성	.533	.370	5.904***		
	2모형	위험감수	-.069	-.054	-.934		
		인내부족	.052	.056	.888		

* $p<.05$, ** $p<.01$, ***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이 진로포부에 대하여 4.7%($F=13.287, p<.001$)의 설명을 하는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된 과제접근기술의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부족을 함께 모형으로 추가하였을 때도 유의미한 F변화량을 보여주었다. 추가된 모형이 진로포부에 대한 16.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 값이 12.527($p<.001$)로 유의미함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1모형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beta=.218, p<.001$), 즉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면 진로포부도 높아지는 정적인 결과를 보이나 과제접근기술이 추가된 2모형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진로포부에 유의확률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6, p>.05$). 과제접근기술 중에서 낙관성($\beta=.370,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와 인내부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이 높아지면 진로포부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정체감은 진로성숙과 진로포부와 정적상관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21][51]과 진로포부가 높다[5]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은주(2001)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이 진로장벽과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22]. 한 개인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어떤 진로정체감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르며, 어떤 상황이 장벽으로 지각되더라도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더 이상 장벽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7].

낙관성은 진로성숙과 진로포부와는 정적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권혜경과 이희경(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현실을 긍정적 방향으로 지각하게 하는 낙관성은 높은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김홍석과 노영천(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11]. 고난에 처할 지라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조정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낙관적인 특성들(Vaughan, 2000)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동시에, 높은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16] 또한 낙관성은 진로장벽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이상희와 서유란(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로 지각된 진로장애와 낙관성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51]. 낙관성은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15].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대처하며(김주희, 1995), 낙관적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대처 결과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15].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을 마주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위험감수행동은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감수행동과 진로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김기승(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한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 또한 Krumboltz(2010)가 제안한 것처럼 내담자가 진로미결정 상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위험감수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미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는 진로성숙과는 정적상관을, 진로장벽에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험감수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한 김경옥(2009)의 연구와 내적 통제감을 가질수록 진로태도가 더욱 성숙된다고 보고한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17][48].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못건뎠으며 모호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34]. 또한 인내력 부족은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며,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8].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지각된 진로장벽으로 인해 걱정이 많고 불안하여 진

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성숙에는 진로정체감, 낙관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발달을 위해 개인이 일의 세계를 이해해서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 짓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관성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 역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장벽에는 진로정체감, 낙관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선택 시 진로장벽을 지각하게 되었을 때, 이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진로포부의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낙관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는 것과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깊이 지각하는 것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검토하고 이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선택과정에서 과제접근기술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욱 성숙한 태도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로, 진로선택에 대한 변인인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가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 기술 중 낙관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 위험감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했다. 그 결과 Krumboltz(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선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낙관적인 성향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 견디어 내는 인내력을 학습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는 Krumboltz의 이론이 우리나라 대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진로선택 과정에 미치는 변인으로 지능, 흥미, 적성, 가정환경, 학력 등의 개인·심리적 변인들을 꼽아왔다. 본 연구는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선택에 대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보으로써 진로상담 시 적성, 흥미, 가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적 반응양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과제접근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상담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진로상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성숙과 진로포부 수준을 높이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관성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진로성숙과 진로포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낙관성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와 같은 과제접근기술을 어떠한 시점에 활용할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사전·후 검사를 통해 과제접근기술 향상이 진로 선택에 있어 태도와 결정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제접근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므로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영역 측정도구를 각기 다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좀 더 체계적인 척도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혜경, 이희경,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723-741, 2004.
[2] 김민정,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4] 임은미, 이수진, 송미숙, “대학생을 위한 전공전환 준비도 검사의 타당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85-102, 2011.
[5] G. Hackee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6]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12.
[7]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pp.1-26, 2008.
[8] 설승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문제 해결 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1호, pp.209-235, 2008.
[9] 손은령,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85-397, 2009.
[10] 손은령, 손진희,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399-417, 2005.
[11] 김홍석, 노영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625-2640, 2012.
[12] 김주희,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3] 양돈규, “위험행동에 대한 낙관성 및 감각추구성향의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9호, pp.89-113, 2001.

- [14]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초등학생 직업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15호, 제2권, pp.23-39, 2002.
- [15] M. F. Scheier, C. S. Carver, and B. W. Bridges,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pp.1063-1078, 1994.
- [16] S. C. Vaughan, *Half empty, half full: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roots of optimism*, New York: Harcourt, 2000.
- [17] 이기학, 한종철,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제8권, pp.219-255, 1997.
- [18] 이은주, *여대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포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9] 임용수,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 모형: LISREL 모형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30호, 제3권, pp.132-145, 1992.
- [20] 임은경, “여성의 진로장애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3권, 제1호, pp.79-97, 1998.
- [21] M. L. Savickas,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7, pp.329-337, 1985.
- [22] 조은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3] J. 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69.
- [24] 최수옥,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5] J. W. Rojewski, “The role of chance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individuals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Vol.22, pp.267-278, 1999.
- [26] 탁진국, 이기학, “직업안내를 위한 흥미와 성격의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6권, pp.59-74, 2003.
- [27] K. M. O'Brien, M. P. Gray, P. P. Tourajdi, and S. P. Eigenbrode, The Oper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eberg & K. M. O'Brien(Eds), *Promotion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ium and beyon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6.
- [28] K. E. Mitchell, A. S. Levin, and J. D. Krumboltz,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7, pp.115-124, 1999.
- [29] M. Freeston, H. Letarte, M. J. Dugas, and R. Ladouceur,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7, pp.791-802, 1994.
- [30] 황매향, *사례로 배우는 진로 및 직업상담*, 학지사, 2009.
- [31] L. K. Mitchell and J. D. Krumboltz,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233-280), San Francisco: Jossey-Bass.
- [32] D. L. Blustein, L. E. Devenis, and B. Kidney,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6, pp.196-202, 1989.
- [33] S. L. Bowman, “Career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thnic minorit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2, No.1, p.14, 1993.
- [34] M. J. Dugas, M. H. Freeston, and R. Ladouceur,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21, pp.593-606, 1997.

- [35]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 [36] 문승태, 박미하, “농업계 고등학교의 가족변인, 진로정체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3호, pp.1-22, 2012.
- [37] K. Buhr and M. J. Dugas,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40, pp.931-945, 2002.
- [38] J. D. Krumboltz, *Career beliefs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Inc, 1999.
- [39] 김경식, 김찬선,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제11호, pp.404-414, 2013.
- [40] M. I. Graef, D. L. Wells, A. M. Hyland, and P. M. Muchinsky, “Life history antecedents of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7, No.3, pp.276-297, 1985.
- [41]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pp.79-122, 1994.
- [42] L. S. Gottfred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545-579, 1981.
- [43] V. A.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pp.119-133, 1979.
- [44] J. L. Holland and J. E. Holland,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Psychology*, Vol.24, pp.404-414, 1977.
- [45] J. L. Holland, D. C. Gottfredson, and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1, pp.1191-1200, 1980.
- [46]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Krumboltz의 우연학습 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3권, 제3호, pp.855-875, 2012.
- [47] J. D. Krumboltz, Serendipity is not serendipito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pp.390-392, 1998.
- [48] 김경옥,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2호, pp.501-519, 2009.
- [49] 김기승,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위험감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1054-1060, 2012.
- [50] 김나래, 마림, 김경아, 이동귀, “중학생의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를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제14권, 제4호, pp.1799-1818, 2012.
- [51] 이상희, 서유란,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1호, pp.27-53, 2012.
- [52] 정나미, 엄정혜, 성버리, 양은주, “청소년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 내외통제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8권, 제3호, pp.359-377, 2011.
- [53]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 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2호, pp.193-210, 2012.
- [54] 이홍표,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 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55] P. A. Careed, W. Patton, and D. Bartrum,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0, pp.42-61, 2002.

- [56] 윤영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pp.91-106, 2009.
- [57] 김지연, 황매향,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학회*, 제5권, 제3호, pp.637-646, 2004.
- [58] T. B. Kashdan, and J. E. Roberts, *Trait and state curiosity in the genesis of intimacy: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structs*, Manuscript submitted for review, 2002.
- [59] T. B. Kashdan, P. Rose, and F. D. Fincham,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Manuscript submitted for review, 2002.
- [60] 이복희,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61] 조명실, 최경숙,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제8권, 제3호, pp.1085-1099, 2007.

저 자 소개

김 경 미(Kyoung-Mi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충남대학교(학사)
- 2001년 2월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박사수료)
- 2006년 5월 ~ 2010년 12월 : 충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
- 2012년 2월 ~ 현재 : 진로와 소명 연구소 전문코치 <관심분야> : 진로상담,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배 영 광(Yong-Kwang Bae)

정회원



- 2004년 2월 : 나사렛대학교(학사)
- 2007년 8월 : 나사렛대학교 재할복지대학원 재활심리학(석사)
- 2013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3년 1월 ~ 현재 :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일제청소년동반자
- <관심분야> : 진로상담, 직업상담사 교육 및 학교폭력

민 이 슬(Yi-Seul Min)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결대학교(학사)
- 2012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강동교육청 Wee센터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사
- 2014년 1월 ~ 현재 : 동부교육청 Wee센터 전문상담사 <관심분야> : 대학생 및 청소년 중독, 진로상담, 가족상담, 긍정심리

장 성 화(Sung-Hwa Jang)

정회원



- 2000년 2월 : 건국대학교(공학사)
- 2005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세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2년 3월 ~ 2012년 12월 :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1월 ~ 현재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심리학 교수
- <관심분야> : 대학생 및 청소년 중독, 군상담 및 학교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교정상담